

학벌 · 학력의 정치경제학 : 시론

홍 훈*

요약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학벌 · 학력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으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사회에서 학벌 · 학력과 관련된 문제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학력에 대한 맹종과 학벌에 대한 추종은 권력, 돈, 명예를 분배하는데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를 낳는다. 또한 그것은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에 근거하며, 이같이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이 사활을 건 입시경쟁을 낳는다. 이 같은 사회 · 교육 구조로 인해 인문학의 몰락 등으로 상징되는 대학교육의 공동화, 중등교육의 황폐화, 고시 숭상, 이공계 경시, 사교육비의 급증,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변동, 조기 유학 및 세칭 “기러기 아빠”, 청소년의 자살,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 · 경제의 병리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력과 학벌을 쟁취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교육비 또한 연간 16조 원에 이르러 이미 교육부 예산의 60%를 넘어섰다. 이런 사회적 가치와 비용은 독특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낳은 결과이자 전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글은 학벌 문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론화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이 글은 경제학의 가치이론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초해 현상적으로 사회경제의 구조라는 질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 가치(량)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학벌 · 학력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근거에서 그런 가치가 상당 부분 부당한 것인지 보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념적으로 신고전학과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근거에 깔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정형화된 이론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글은 일종의 암중모색과 같아 현 수준에서는 느슨한 논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론 차원의 서론으로서 경험적 분석을 후일의 과제로 삼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핵심 주제어 : 학벌, 학력, 가치, 가격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교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우편번호 120-749, hoonhong@base.yonsei.ac.kr

I. 학력 · 학벌과 가치에 대한 정의

1. 학력, 학연, 학벌에 대한 정의

학력·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력·학벌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우선 학력·학벌과 관련된 용어들을 열거하면 학력, 학연, 학벌, 학풍, 학파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학파(學派)나 (이보다 약한 의미의) 학풍(學風)은 학문 자체와 관련해 이념이나 이론 혹은 방법의 질적이거나 양적인 차이로 모든 학문에 생겨나는 건전한 다양성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파나 학풍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없어서 문제가 된다. 한국사회에 학파나 학풍이 없다는 것은 우리 학문이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극도로 대외 의존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며, 한국사회에 이념이나 문화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 학계나 사회에서 학파나 학풍을 대신하는 것이 학력, 학연, 그리고 학벌이다.¹⁾ 한국의 학계에서는 학사보다 박사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항상 더 큰 발언권을 가지며, 특정 대학교 출신들 사이의 개인적 친분이 학문적 관심을 압도하고, 대학교별 집단 형성이 이념에 따른 학회나 토론의 구성보다 우선된다.

학계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 분야에서도 교육 수준이나 특정 학교에 근거한 학연이나 학벌 등이 능력이나 노력과 별도의 영향력을 가진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전반적으로 수직적인 서열이나 가족적 유대가 수평적인 다양성을 대체하고 있다.

학력, 학연, 학벌은 모두 졸업장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나름대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학력(學歷)은 초등, 중등, 고등, 대학, 혹은 그 이상으로 구분되는 교육의 수준을 나타낸다. 기본적으로 학력은 중졸, 고졸, 대졸

1) 학파나 학풍 대신 학연이나 학벌이 지배하는 한국 학계의 현실은 이념 중심의 정당 대신 인물 중심의 정파(政派)가 지배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에 상응한다. 또한 교리, 교과, 교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한국인의 종교생활을 지배하느냐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든 집단들은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벌(財閥)과도 유사하다. 다만, 재벌의 형성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조장된 것인데 비해, 학벌은 거의 자생적(spontaneous)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등 교육 정도를 개인 차원에서 규정하는 개념이다. 이같이 학력은 동일한 교육 수준에서 특정 학교나 학교들 사이의 서열이나 차이를 시사하지 않는다.

학연(學緣)은 특정 학교의 졸업자들 사이에 생기며 이들 각 개인의 목적이나 수단이 되는 연결망(network)을 의미한다. 이런 연결망은 학교를 통해 맺어진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라 형성된다. 그런데 특정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이와 같은 연대감을 가질 수 없으므로 학연은 학력과 달리 학교들 사이의 차이나 우열을 시사하고 있다.²⁾ 그러나 학연은 순전히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규정되지 않으며,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의식을 포괄하는 애매한 존재이다.

학벌(學閥)은 단순히 같은 교육 수준이 아니라 같은 학교 졸업생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다른 집단과 다툼을 벌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학연이라는 표현은 연결망을 이용하는 것이 개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비해, 학벌이라는 개념은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의지가 개인의 의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연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의존한다면, 학벌은 선후배라는 상하관계를 내부의 조직원리로 삼는다. 그렇지만 학연과 학벌은 모두 각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타인과의 관계나 집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에 의존해 권력, 돈, 그리고 명예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학력 > 학연 > 학벌의 순서로 개인의 의지나 이익이 크게 나타나며, 집단의 의지나 이익은 그와 반대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학력이 모든 서양 사회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라면, 학벌은 보다 한국 혹은 동양 사회의 고유성을 담고 있는 문제로 추정된다. 더구나 학력이 무언가 증가시킨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비해, 학벌은 주어진 전체양을 놓고 투쟁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크다. 학연은 학력과 학벌의 복합 혹은 양자의 중간이다.³⁾ 이런 의미에서 학연은 개인적이면서 보편적인 학력과 집단적이면서

2) 이것은 한국의 노조가 산업별로 구분되기보다 단위 사업장별로 구분되는 경향과 유사하다.

3) GDP 등 경제량이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분배만큼이나 성장도 중요하다. 이에 비해 권력은 그 전체양이 고정되어 있어 단순히 분배 문제만을 안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력이 베커(G. Becker)의 인적자본이론 등 주류 경제학의 흐름과 친화력을 갖는다면, 학벌은 정치학이나 마르크스(K. Marx)적인 좌파 정치경제학과 친화력을 갖는다. 이와 더불어 중간에 놓여 있는 학연은 베버(M. Weber)적 관점의 사회과학이나 문화주의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결망 이론을 통해서도 분석이 가능할 것

특수성을 지닌 학벌 양자에 의해 포괄된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학력은 학벌과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그렇지만 두 가지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학벌에 상당부분 포섭되어 있다. 우선, 1981년의 졸업정원제 등을 통해 대학의 정원과 대학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졸과 대졸의 구분이 훨씬 연속적인 것이 되었다. 말하자면, 소위 낮은 서열의 대학 졸업자는 전문대학이나 고교 졸업자와 커다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것과 높은 서열의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중상위권의 학생들에 국한된 것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모든 계급이나 계층에 닥치는 문제이다. 비록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이 자식의 대학입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대학입학이 원칙적으로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학벌쟁취를 위한 입시경쟁은 노동자나 교육을 별로 받지 않은 학부모에게도 엄연히 자식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사회에서 학벌문제는 부분적으로 학력문제를 포섭한다.

2. 사회경제적 구조와 가치

마르크스는 가치이론을 가지고 경제와 사회를 분석했는데, 그의 가치이론은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회구조와 사회관계의 재생산 및 가격의 성격을 규명하는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수량적인 차원에서 가격을 설명하는 것이다. 가치는 본질적인 것으로 구조 및 계급과 같은 차원에 있고, 가격은 가치의 형태로서 개별 사회주체의 행동을 유도하며, 수요·공급에 의해 영향을 받아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갖는다. 이런 관점에서 가치(value)를 사회구조와 사회관계로 규정하고, 이 사회관계를 재생산하는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고리로 가치형태(value forms)를 상정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진다(Hong, 2002, pp. 615~618).⁴⁾ 이런 관점에서 학

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서양의 노동 경제학이나 교육 사회학이 주로 학력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학벌이라는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데 나름대로 한계를 안고 있을 것이다. 보다 넓게 본다면 학력, 학연, 학벌 중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는 사회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나 이념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4) 이런 생각은 주로 교육사회학에서 보울즈와 진티스(S. Bowles and H. Gintis), 콜린스(R. Collins, 1979)나 부르디유(P. Bourdieu)의 재생산이론과 유사하다. (김천기, 3장 참조) 대체로 모든 종류의 재생산이론은 마르크스(K. Marx)에서 시작되는데 현대의 철학적 조류로는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과 친화력이 강하다.

벌과 학력의 사회경제적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수량적인 차원에서는 마르크스가 재생산표식(reproduction scheme)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사용가치의 재생산과 수요·공급을 고려하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에 있어 사회구조와 가치의 수량이 명확히 연결되지 않은 것이나 가치의 수량을 노동가치로 규정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보가 불가피하다.

가치 및 가격과 관련해 우선, 신고전학과 등 근대 주류경제학은 가치와 가격을 구분하지 않으나, 고전경제학과 마르크스 경제학은 가치와 가격을 엄밀하게 구분했다. 후자가 가치를 가격으로부터 구분한 이유는 가치가 가격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이것이 가격을 설명하는 보다 근본적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마르크스 경제학에 있어 가치는 사회구조나 계급과 연결되고, 가격은 그런 가치의 형태로 규정된다. 학벌·학력과 관련해 해서도 직위나 임금 혹은 교육비 등의 가격들과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후에 설명되는 바와 같이 학벌·학력 문제는 교육과 사회가 연결되는 사회구조와 계급 혹은 신분과 연결되며, 이런 것들이 입시비용이나 임금 등 가격의 변동을 낳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연결된 것으로 학력·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해 윤리적 가치 혹은 정당한 가치와 존재적 혹은 경제적 가치를 구분해야 한다. 윤리적 가치는 인간이 누리거나 물체에 마땅히 부여되어야 할 가치이며, 경제적 가치는 인간이나 물체가 현실적으로 누리거나 부여받고 있는 가치이다. 가령, 시장에서 사과가 하나에 1,000원에 팔린다면 그 현상 자체는 경제적 가치에 속하며, 그것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너무 비싸다고 한다면 그 가치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학력·학벌은 물적인 상품과 달리 인간의 후천적 속성이므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노동 혹은 노동력의 가치와 관련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현상적으로 부여되는 가치에 초점을 맞추며 이것에 필연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윤리적 가치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자는 철학자보다 자연과학자에 가깝다. 특히,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와 가격에 대해 윤리나 사회정의를 논할 수 없다고 보거나 심지어 시장의 가치나 가격이 그 자체로 윤리적이거나 정의롭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은 사회와 경제 속에서 현상적으로 학력·학벌에 부여되는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학력·학벌

이 사회적 병폐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구분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학력·학벌의 가치는 권력, 돈, 명예 등으로 다양하므로 단순히 금전적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순전히 경제적이라기보다 사회경제적이다. 즉, 학력·학벌의 가치는 경제학자들이 주로 말하는 가치와 달리 그것의 소유자가 얼마큼의 임금을 받느냐로 완전히 표현되지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분야나 조직에 진입할 수 있는가, 일단 특정 분야나 조직에 진입했다라도 그 조직 내에서 어떤 직책이나 직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가 등 비금전적인 요인들도 그 가치를 구성한다. 따라서 학벌·학력의 가치는 임금이나 소득 등 하나의 변량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권력, 돈, 명예 등 다변량의 벡터로 표현된다.⁵⁾

II. 학벌·학력의 사회경제적 구조

한국사회와 교육의 기본 구조를 보면, 학력·학벌에 의존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차등이 대학의 서열에 의해 뒷받침되고, 이런 대학 서열이 입시경쟁을 통해 유지되며, 다시 입시경쟁을 위해 중·고등 교육이 존재한다. 학벌에 의한 사회의 차등으로 인해 대학은 자신의 서열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중등 수준의 공교육과 사교육은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보다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는데 집중되어 필사적인 입시경쟁을 낳고 있다. 뒤집어 중등교육에서 치열한 입시경쟁을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대학의 서열로 보상받기를 원하고, 특정 대학의 졸업자는 자신의 서열에 상응하는 보상을 사회에서 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의 학벌구조,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 그리고 입시교육이 연계되어 서로를 유지시키고 재생산한다.

해방 이후로 학력·학벌로 인한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대학

5) 이 점은 한국 자본주의의 전근대성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홍 훈, 1999). 좌파와 우파의 경제학이 모두 당연시하는 사회 및 경제의 전면적 상품화와 현금고리(cash nexus)는 한반도와 아직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물론 특정 학벌을 얻게 된다면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국인들에게 물어 본다면 학벌의 가치를 순전히 화폐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기여입학제가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방식의 조사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교의 서열은 보다 공고해졌으며, 입시경쟁은 훨씬 더 치열하고 심각하게 변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각모로 상징되는 대졸자와 고졸자의 구분은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에 결부된 문제 중 일부에 불과하다.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소재 유명 대학과 여타 대학, 서울소재 대학과 지방대, 대학과 전문대학 등 섬세하고 견고한 서열의 탑이 그간의 변동을 통해 형성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각 대학교가 그나마 유지해 오던 전공이나 분야별 특색은 완전히 서열체계에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가령, 모모 대학의 법과대학, 상경대학, 미술대학, 축산학과 등은 그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의 학벌구조는 단순 재생산이 아니라 확대 재생산의 길을 걸어 왔다.

대신, 대학교의 서열과 함께 이것의 부산물로서 일부 전공의 서열이 형성되었다. 과거 법대, 상대, 공대 등이 이끌던 유명 전공이 노동시장의 변동, 세계화, 인문학의 붕괴로 인해 한의학, 의학, 경영학, 영문학 등으로 바뀌고 있다. 이과계열에서는 전공 서열이 부분적으로 대학교의 서열을 파괴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인기도를 나타낸다고보다 전공의 수평적인 다양성과 대립되는 수직적인 서열로서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병폐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병적인 전공서열은 학벌에 근거한 대학교가 노동시장의 변동을 왜곡해 온 것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생각할 수 있다.

학력·학벌과 관련되어 재생산되는 사회구조 및 사회관계로 우선 학벌구조와 사회구성원 사이의 차등 관계와 대학의 서열 구조를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부의 구조로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교사의 관계, 학부모와 학생의 관계,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 대학교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체계를 지적할 수 있다.⁶⁾ 또한 이런 사회구조나 관계가 나타나는 형태로 수능점수, 졸업장, 그리고 권력과 임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학력·학벌로 규정된 사회경제적 가치는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졸업장, 특정의 직위나 특정 수량의 화폐라는 구체적 형태로 등장해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한다. 이것은 시장에서 특정 상품의 가격이 해당 기업의 향후 생산이나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과 유사하다.

6) 추후에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나 이들 다양한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마르크스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필리아(philía) 편과 『정치학』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

즉, 특정 대학 졸업이 부여하는 학력·학벌의 가치가 그 대학교 졸업자의 의식에 내면화되어 그의 행동을 규정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구성원이 특정 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이에 걸맞게 행동해야 한다든지 대우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⁷⁾ 뿐만 아니라 특정 대학교의 가치는 사회의 여타 구성원들에게도 확산되어 그 대학교의 졸업자에 대한 기대나 태도를 형성한다.

그런데 여기서 학력보다 학벌이 더 문제시되고 학력이 직접 권력이나 돈과 연결되지 않고 이들 사이에 대학의 서열이 개입된다는 것이 한국적인 특징이다. 이에 근거해 한국사회와 교육의 보다 특수한 측면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학벌은 서양의 지식과 학문을 받아들인다는 근대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집단을 구성해 다른 사회구성원들을 배제하는 폐쇄성과 전근대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경쟁을 배제하고 독점적인 특권의 향유를 목표로 한다. 더불어 봉건사회가 안고 있는 신분제의 질곡을 깨뜨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의 동등한 참여를 주창하면서도, 대학의 서열을 통해 대부분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손상시키는 것이 학벌이다. 과거 양반 중심 사회에서 태어나면서 결정되던 사회신분을 10대 후반으로 미루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능력주의나 개인주의 등 근대적 이념을 갖추고 있는 양 과시하는 것이 우리의 학벌이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절차적 합리성을 자랑하는 입학시험에 의존하면서도 부정으로 언제 붕괴될지 모르고 사회 속에서는 타인을 무시하고 배제하며 때로는 부정부패를 낳는 것이 학벌이다. 나아가 입시의 철저한 절차적 합리성은 부정부패 등 사회의 비합리성을 은폐하고 왜곡하며, 그것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끝으로, 학벌은 학문과 학교가 지닌 신성함을 외피로 하면서도, 처절한 경쟁, 군대식 훈련,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자살, 패거리 짓기, 권력과 돈의 쟁탈 등을 그것의 내용으로 삼는다.

이같이 학력·학벌은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봉건적 서열과 근대적 동등성의 모순적 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 학벌은 참여와 배제, 동등

7) 공개토론회에 나서면서도 자신과 '등급'이 비슷한 사람들이 동참하는지 따져보는 실태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8)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등한 인간"과 "서열화된 인간"을 구분한 프랑스의 경제인류학자 뒤몽(L. Dumont)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Dumont, 1977, 1980). 혹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 상황에 보다 적합할 수 있다.

함과 서열, 경쟁과 독점, 사회적 이동성과 계층, 능력주의와 신분의식, 개인주의와 혈연주의 및 집단주의, 합리성과 비합리성, 신성과 세속 등의 복합이다. 이같이 학벌은 봉건성의 실체와 근대성의 외피가 결합된 복합체로 우리사회의 모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존재이다. 달리 말해, 학벌은 가장 견고한 근대성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전근대성이 자리잡을 수 있는 집과 같다.

학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근대성의 외피를 지연과 혈연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학연이나 학벌을 지연이나 혈연과 동일한 범주로 취급하는 것은 인식의 오류를 낳는다. 한편으로 학벌을 지연이나 혈연으로부터 구분하지 않는 경우 학벌을 지연이나 혈연과 동일하게 단순히 전근대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한국사회에서 학연이나 학벌이 혈연이나 지연을 능가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혈연이나 지연과 달리 학벌이나 학연이 가진 이념적 성격을 파악하거나 설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오해하는 경우 학연이나 학벌이 가진 외피인 근대성에 기대어 혈연이나 지연보다는 그나마 학연이 낫다는 논리로 이어져 학연과 학벌을 옹호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이같이 상당수의 사람에게 강력한 이념의 외피로 무장하고 등장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학벌이다. 한국사회에서 학벌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심지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인된 이유는 학벌이나 학력이 바로 근대성의 외피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이념, 그리고 이것의 핵심인 경쟁 논리를 입시경쟁과 동일시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피할 수 없는 자연상태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

넓게 보면 한반도에서는 개항 이래 서양의 문물이 자립적으로 수용되기보다 외세에 의해 강요되고 지식인과 지배층에 의해 민중에게 일방적으로 이식되었다. 이같이 진정한 근대화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종래의 전근대적 신분사회의 파편들이 근대적 시민사회와 결합하게 되었다. 이로써 형태상으로는 근대적이나 내용상으로는 전근대적인 복합적·사회적 존재가 여러 군데에서 형성되었다. 학력, 특히 학벌은 그 대표적 예로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서열화된 인간의 존재는 자아(ego)의 박약함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은 학력이나 학벌이 우리사회에서 개인의 자긍심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결과와 합치된다. 나아가서 미시적으로 그것은 프로이트(S. Freud)의 개념으로 초자아와 본능, 혹은 교과서적인 엄격함과 무절제한 발산의 지속적인 충돌을 의미하며, 거시적으로는 우리사회 내부에서 문명과 야만의 끊임없는 충돌을 의미한다.

서 봉건적 독점과 근대적 경쟁이 결합해 낳은 사회적 존재이므로, 사회적 과정의 전제이자 이를 통해 재생산되는 결과이다. 학벌은 지배층의 인적구성이 과거와 달리 경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합리성에 기대어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비민주성과 신분적 독점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이중성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학력·학벌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경쟁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교육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자율성이나 자긍심,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형평을 지향한다. 그런데 한국의 학력·학벌은 근대적인 평등을 외피로 삼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봉건적인 서열을 공고히 한다. 특히, 학벌이라는 존재는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행위인 교환과 계약이 전제로 하는 사회구성원의 사전적인 평등성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의 학벌은 형평이나 효율의 전제이며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자긍심(self-respect)에 손상을 주고 있다(홍 훈, 1994).

보다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학력, 대학서열, 그리고 수능점수가 인간에 대한 다양한 평가의 기준들이나 인간관계를 이루는 여러 기반들을 대부분 흡수해 버렸다는 것이다. 학벌과 학력은 마치 고대의 철학자들이 추구해 왔던 최고의 선이나 공통선 혹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가치나 화폐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 다른 모든 선이나 가치들을 굴복시키고 흡수하는 전제적 폭력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이 한편으로 시장에서 화폐와 자본이 점점 더 모든 것을 획일적인 기준으로 흡수하는 과정이었다면, 다른 한편으로 학교에서는 수능점수가 모든 교육의 이념과 가치들을 용광로처럼 녹여버리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화폐로 표시된 가격과 수능점수가 만나는 지점이 서열을 본질로 하는 한국의 대학이다.

여기서 화폐나 가치와 수능점수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화폐로 전환되어야 하는 상품의 '운명'을 필사적 도약(salto mortale)이라 표현했는데, 한국 입시준비생의 '운명'이 이와 유사하다(Marx, 1967, p. 106). 상품이 특정 수량의 화폐로 전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입시생들은 수능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승인(social validation) 받는 셈이다. 가격이 자본주의의 보편적 현상인데 비해 수능점수가 부분적으로 한국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수능점수는 사회적 행위의 결과가 구체적 숫자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화폐와 경제적 가치가 인간과 물체를 시장(市場)에서 동질적으로 만들면서 양적으로 규정한다면, 수능점수와 학벌은 인간들을 입

시의 장(場)에 끌어들여 특정 차원에서 동질화하면서 양적으로 구분한다.

또한 마르크스에 있어 무정형의 화폐나 가치가 모든 경제관계와 결합해 그 성격을 변화시키듯이, 수능점수와 학벌은 한국사회의 모든 인간관계에 개입해 그 성격을 변화시킨다. 가령, 높은 수능점수와 좋은 학벌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관계, 남녀관계, 친구관계, 노사관계 등에서 당사자의 여타 모든 결합을 보완해 줄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단적으로 상대방의 돈으로 인해 허구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는 상대방의 학벌로 인해 허구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장주의자들이 화폐추구로 특징지을 수 있는 시장경제를 자연질서처럼 여기듯이, 우리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벌구조, 대학서열, 입시경쟁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학생들을 수능점수로 늘어 세우는 것, 일렬로 늘어선 대학의 서열과 이런 대학의 서열이 학생들의 입학성적으로 결정되는 것, 인간관계에서 언제나 학력과 학벌이 개입되는 것, 출신 학교별로 동창회를 만들고 이에 상응하는 권력, 돈, 명예를 추구하는 것 등 보편성을 갖지 않는 현상들을 모두 자연스럽게 여기는 오류가 한국사회에서 존재한다. 이것은 시장주의자들이 이기적인 행위와 시장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숫자로 표시된 수능점수는 시장의 가격이 가지는 만큼 혹은 그 이상의 객관성이나 자연성을 누린다. 시장의 상품가격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한국사회에서 수능점수는 불가피한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

이런 가격이나 수능점수의 유사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 최근 대학교수의 평가에 있어 SSCI(사회과학 주요 학술지 목록)나 SCI(자연과학 주요 학술지 목록)가 유일한 기준으로 부상한 것이다. 교육계의 수능점수가 우회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에서 학생들의 권력이나 임금으로 이어진다면, SSCI나 SCI는 교육계의 노동시장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교수의 권력이나 임금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수능점수와 학벌은 권력이나 화폐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학벌은 궁극적으로 권력이나 돈, 그리고 명예로 이어지지만, 이런 것들과 다른 독자적인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학벌이 자신의 신성함이나 순수함을 내세우면서 부패나 타락을 들어 때때로 권력이나 돈과 대립해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돈이 인간의 소유물로서 물적인데 비해 학벌이 보다 인적이어서 특정한 자체나 그의 능력이나 노력과 동일시된다. 쉽게 말해, 부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 이외에 사기나 부패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도 학벌에 대해서는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 특히 유명대학들은 '빛나는' 졸업장이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벌과 학력의 신성함을 과시하려고 노력해 왔다.

돈이 철저히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의 형태인데 비해, 수능점수와 학벌은 외견상 정신적이고 신성하며 상징적인 가치의 형태이다. 돈과 자본으로부터 사업과 장사와 심지어 사기와 친박함이 연상된다면, 학벌에는 유교와 사대부의 존재, 개항 후 배움과 개화, 진리와 자유 등 외견상 고상한 가치가 연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학벌에는 순전히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 신성함이 결부되어 있다. 이 점은 돈이 한국사회의 근대성과 주로 연상되는데 비해, 학벌이 전근대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학벌이 돈이라는 확실적인 척도로 환산되지 않고 권력이나 명예와도 연결되는 것은 그것에 담겨 있는 봉건성을 반영한다.

한국에서 학벌의 기반인 대학은 치열한 입시경쟁 및 사교육 현장과 치열한 노동시장 사이에 개입해 사교육비와 권력 및 돈을 격리시킴으로써 교육의 신성함을 유지하고 동시에 교육의 실상을 은폐하는 제단(祭壇)의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이 제단은 수많은 학생들을 제물(祭物)로 삼고 있다. 우리사회의 학벌과 대학이 서양의 대학이 가질 수 없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학연이나 학벌은 국민총생산이나 권력을 분배할 뿐만 아니라 명예를 나누고 개인의 생활 자체를 규정하는 일상성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때문에 대학의 서열과 무관하게 교육 수준을 가지고 직접 임금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서양의 경제학이나 사회학이 학벌 문제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상징성은 한국의 학벌과 외국대학에 대한 숭상을 연속적으로 만든다. 개항 이래 심화되고 있는 유학과 외국대학 졸업장에 대한 숭상은 학벌이 갖는 상징성과 동일하다. 현재 외국대학에 대한 숭상은 외국대학의 학사에서 석사로, 석사에서 박사로, 박사에서 외국대학의 교수로 더욱 승격되고 있다. 또한 대학 졸업 이전의 조기유학의 열풍을 낳고 있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유한 돈이 인격이나 인간 자체와 거리를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벌 역시 인격이나 지식이 아니라 간판이나 집단의 신호라는 점에서 양자 모두 본질이나 실체와 거리를 두거나 이에 모순되는 사회 형태이다. 그러므로 학벌은 궁극적으로 권력, 돈, 명예와 유착될 수밖에 없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개항 이후 한국사회의 한쪽 끝에서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로서의 화폐와 자본이 점점 고상해지고, 다른 한쪽에서 교육과 학교로 연상되는 정신적이고 고상한 가치가 졸업장 등을 통해 점차 세속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지식인이 일차 권력과 결혼하고, 이어 화폐 및 자본과 거의 결혼한 것이 현재 한국의 학벌이다.

이 점에서 서양의 기독교 혹은 유대교와 화폐의 접근을 간파한 마르크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신이나 노동의 생산물 혹은 화폐에 보다 많은 것을 부여할수록 인간은 더욱 고갈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치환하면, 한국사회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벌에 보다 많은 것을 부여하면서 자신은 더욱 고갈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Money is the jealous God of Israel, ... Money is the universal and self-sufficient value of all things. It has, therefore, deprived the whole world, both the human world and nature, of their own proper value. The bill of exchange is the real god of the Jew. His god is only an illusory bill of exchange. That which is contained in an abstract form in the Jewish religion — contempt for theory, for art, for history, and for man as an end himself — is the real, conscious standpoint and the virtue of the man of money. (Marx, 1963a, p. 37)

This fact simply implies that the object produced by labour, its product, now stand opposed to it as an alien being, as a power independent of the producer. ... the worker is deprived of the most essential things not only of life but also of work. ... the more powerful becomes the world of objects which he creates in face of himself, the poorer he becomes in his inner life, and the less he belongs to himself. ... The more of himself man attributes to God the less he has left in himself. (Marx, 1963c, p. 122)

Ⅲ. 학벌 ·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가격

학벌과 학력에는 이미 논의한 사회구조 및 사회관계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수량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가치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수반된다. 질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는 학벌 · 학력이 근대성과 봉건성, 그리고 종교와 속세의 결합체로 개념화된다면, 양적인 가치로는 권력, 경제적 가치, 그리고 문화적 가치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학력 · 학벌의 가치는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 그리고 행 · 불운과 무관하게 자신의 졸업장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얻거나 잃게 되는 권력, 돈, 명예로 정의된다. 또한 각급 학생의 '수요 · 공급'과 다양한 노동력의 '수요 · 공급'이 문제되면서 이런 가치는 재생산 과정에서 가격과 비용의 형태로 등장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 가치는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으로 인해 빚어진 결과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형태와 수량으로 나타나 구성원들의 동인이나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학벌과 학력의 가치를 결정짓는 요인을 분리해 내기 위해 사회구성원의 지위, 재산 및 소득, 그리고 명예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열거해 보자. 그것은 우선 사회 현장에서 개인이 발휘한 노력 및 시간, 그리고 자원뿐만 아니라 학력, 학벌의 서열, 해당 학벌집단의 응집력을 들 수 있다. 또한 학력이나 학벌을 획득하기 위해서도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능력, 노력과 지출된 시간, 금전적 자원 혹은 사교육비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금전적 자원에 있어 계급이나 계층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초 · 중 · 고등학교의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과 하숙비용, 직장의 초임, 최종 임금과 직책 등이 학벌 · 학력과 관련된 가격이다. 그런데 교육과 경제 · 사회가 얽혀 있는 학벌의 재생산에는 가치 및 가격뿐만 아니라 '수학능력' 혹은 학력(學力)과 점수가 개입되어 있다. 각급 학교의 성적과 내신, 수능점수, 대학의 학점, 입사시험 성적이나 고시성적 및 연수원 성적, 승진 요건 및 인사고과 점수 등이 그런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점수이며, 나머지는 부차적이다.

학력 · 학벌의 가치는 일차적으로 대학의 서열이나 교육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대학의 서열이나 교육 수준은 수능점수와 내신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사회적 지위나 화폐의 액수 등으로 표시된 학벌이나 학력의 가격은 이

런 가치에 의해 궁극적으로 결정되면서도, 각급 학교의 입학생, 각급 학교의 졸업생 숫자, 노동시장의 수요 변동에 따라 변한다.

우선 학력의 가치는 현실 사회에서 본인이 발휘하는 능력이나 노력에서 벗어나는 독자적인 가치를 가진다. 거기에는 졸업장이라는 상징이 갖는 갖가지 비합리적인 요소들도 개입되어 있다.⁹⁾ 가령, 국산상품보다 외국상품을 무조건적으로 선호하는 것과 같이 국내학위 소지자보다 외국학위 소지자를 무조건 선호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력 인플레이션으로 분야나 직종과 무관하게 무조건 고졸보다 학사가, 학사보다 석사가, 그리고 석사보다 박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예이다.¹⁰⁾

학력이 아니라 학벌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력의 가치가 각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학벌의 가치는 특정 집단에게 부여된 후 각 개인에게 간접적으로 할당된다. 평균적으로 일정 수준의 가치가 특정 학벌 집단에게 부여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특정 학벌을 소유한 개인들이 모두 동일한 학벌의 가치를 누리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차이나 개인의 집단 활용도에 의해 그것의 가치가 개인별로 차이가 날 것이다.

특정 학벌의 평균적 가치는 학벌로 규정되는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그 집단의 가치를 높이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령, 특정 학벌의 구성원들 중 유명인사가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이 그 집단의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게 된다. 뒤집어 이런 기대로 인해 특정 집단이 그 집단의 유망한 사람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노력하는 일도 생긴다. 그러므로 학벌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끌어올리는 과정은 경제적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이다.¹¹⁾

집단의 결속 정도도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결속이 약한 경우에는 학벌이 학연의 성격을 띠거나 아니면 학력으로

9)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일차적으로 적절한 관점은 좌파적인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이론이나 우파적인 신고전학파의 한계효용가치 이론이 아니라 중간적인 베블렌(T. Veblen)의 가치이론이 될 것이다.

10) 비록 학문적인 수준으로 승격되지는 못했지만 한국사회가 이와 같이 허명(虛名)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대다수 지식인들이 동의할 것이다.

11) 서양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의 공적 영역(예를 들어, 선거나 투표, 외교)에서는 정치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대신, 각급 중간조직(예를 들어, 중앙 정부나 대기업의 인사)에서는 훨씬 '정치가 활발하다. 후자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진실한 직무수행보다는 갖가지 부정적 활동을 자극하게 된다.

분해될 것이다. 아직 그 원인이 분명치는 않으나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지만 결속 정도가 다른 경우를 찾아 낼 수 있다. 끝으로 학벌로 형성되는 집단의 규모도 학벌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규모가 커지면서 여러 영역에 구성원들이 확산되어 학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경향도 있지만, 반대로 희소성이나 결속력을 저하시켜 집단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특정인이 특정 동창회에 속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 병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는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누가 속해 있는가를 서로 확인하기 위해 동창회 명부를 만들고 그것을 열심히 개정하는 것도 이런 현실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런 명단을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각자는 자신의 학벌이 갖는 가치를 확인하고,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다짐하게 된다.

학벌·학력의 재생산이 입시경쟁,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 학벌과 학력에 의한 차별이므로 이에 상응해 가치가 재생산되는 과정도 몇 단계로 나뉜다. 우선 입시교육비용이 수능점수라는 동질적이며 기수적이거나 연속적인 수량으로 전환된다. 여기서 학생들의 소양, 적성, 개성 등 모든 차이는 하나의 양적 척도로 획일화된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모든 학생들을 하나의 척도로 환원한다는 점에서 수능점수는 모든 상품을 하나의 척도로 환원하는 가격과 유사하다.

이어서 수능점수(와 내신성적)가 대학의 서열이라는 서수적이거나 불연속적인 수량으로 변환된다. 학생들의 수능점수가 모든 학생들을 획일화한다면, 이 변환은 단순한 수량이나 정도의 차이를 질이나 종류의 차이로 바꾸는 차별화의 과정이다. 이것은 마치 점수가 학점으로 변환되는 것(예로서, 90점은 A, 89점은 B)이나 거리의 명칭이 숫자가 아니라 고유명사인 것(예, 종로1가가 아니라 광화문)과 유사하나 이보다 훨씬 강한 차별화이다. 또한 이것은 파리 소재 대학들의 명칭이 고유명사에서 숫자로 바뀐 것(예, 소르본 대학이 파리1 대학으로)과 반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특정 학생은 몇 점의 수능점수가 아니라 특정 대학 소속의 특정 전공자로 규정된다. 동시에 이 변환 과정은 처절한 입시경쟁을 마감하면서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끝으로 대학의 서열이 다시 사회구성원의 직위나 임금 등 연속적이거나 불연속적인 수량으로 바뀐다. 특정 대학의 졸업장은 공적 영역에서 진출할

수 있는 사회분야나 승진할 수 있는 직책,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제한하며, 사적 영역에서는 갖가지 명예나 오명을 결정하고 결혼 상대자의 범위까지 규정한다.

정리하면 한국의 경제와 교육은 수량적인 측면에서 (입시교육비용)→(수능점수)→(대학서열)→(직위 및 임금)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우선 입시교육비용은 공교육비용과 사교육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¹²⁾ 물론 입시 교육에서 사교육비의 비중은 더욱 크다. 또한 입시비용에는 단순히 화폐로 표시된 것 이외에 학생과 부모의 노력, 시간, 그리고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¹³⁾ 현재 한국의 교육체계에서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유치원이나 태교(胎敎)까지 모두 입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거의 모든 수준의 학교에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계층별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과 재산의 차이가 확고해지면서 사교육비의 비중이 높다는 요인과 겹쳐 부모들의 소득과 재산이 입시비용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이 때문에 강남지역을 포함한 부유층의 자식일수록 다른 모든 요인과 무관하게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차적이지만 대학의 서열을 결정하는 데는 수능점수 이외에 내신성적과 고교등급이라는 요인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대학의 서열이 사회의 권력이나 임금으로 전환되는 데는 지연이나 혈연 등이 추가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의 서열이 권력이나 돈으로 환산되는 과정에는 신규채용뿐만 아니라 내부승진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학벌이나 학력에 의한 차별은 채용할 때뿐만 아니라 오히려 승진 과정에서 더 심각하고 은폐되는 경향이 보다 크기 때문이다.

학벌구조,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 그리고 입시경쟁이 상호 연결되어 서로를 재생산하고 있듯이, 학력 · 학벌의 가치, 수능점수와 대학의 서열, 그리

12) 예를 들어, GDP에 대비한 교육비의 비율이 2001년에 OECD 전체로 6.2%이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비중이 각기 4.8%와 1.4%인데 비해, 한국은 8.2%, 4.8%, 그리고 3.4%였다.

13) 과거 자식의 과거급제를 빌던 기원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입시경쟁의 신앙적인 측면은 교회와 절에서 입시가 다가오면 치러지는 백일기도회 등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다분히 구복을 위한 것으로 과거 알성급제(謁聖及第)를 비는 행사와 다를 바 없다.

고 대학입학으로 이어주는 사교육 등 입시 교육의 가치 및 비용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학력·학벌의 가치, 수능점수 및 대학의 서열, 그리고 입시교육의 가치가 상호 작용하면서 서로를 재생산하는 셈이다. 여기서 학력뿐만 아니라 학벌의 가치가 문제되며 학력의 가치가 교육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고 수능점수 및 대학의 서열에 의해 매개되어 학벌을 형성한다는 것이 한국경제와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권력이나 임금으로 표시된 학벌이나 학력의 가치, 대학의 서열, 그리고 입시교육비용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해방 이후 현재까지 사회의 학벌 구조와 대학의 서열체계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가치도 가속적으로 증가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¹⁴⁾ 이것은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척도로서 화폐가 섬세하게 양적으로 규정되는 것만큼 수능점수가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특정 능력에 대한 정교한 척도가 될 것을 요구한다. 사실상, 한국의 입시제도는 해방 이후 보다 섬세하게 학생들을 변별해야 한다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 없이 그 외형의 순환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또한 전국의 모든 상품이 화폐라는 척도로 상세하게 평가될 수 있듯이, 수능점수는 한국의 학생들에게 전국적으로 석차를 부여해 왔다. 물론 수능점수로 전국 학생들에 석차를 매기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입시교육비 혹은 사교육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며, 이에 상응하여 수능시험을 위한 입시의 변별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었고, 대학의 서열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학벌과 학력에 따라 분배되는 직위, 임금, 혹은 문화적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했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나 계층별로 교육비, 진학 대학의 서열, 분배되는 권력과 돈 등이 더욱 차등되고 있다.

그런데 학벌·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가치), 수능점수 및 대학의 서열(점수 및 서열), 그리고 입시교육비(교육비)는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진다. 학벌 집단이 독자적으로 가치를 높인다든지, 대학이 자신의 서열을 변경시키려고 노력한다든지, 입시교육비의 독자적인 변동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

14) 여기서 졸업장의 가치는 현재까지 있는 그대로 측정되지 않았다. 사실 '빛나는' 졸업장을 정치·경제적인 가치로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 시점에서 교육의 신성함을 가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기여입학제 등을 운운하면서 회자되는 불확실한 정보 등을 참고한다면 이것이 상층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면, 이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점수 및 서열이 가치와 교육비의 매개변수라는 것은 분명하다. 일견 가치와 교육비 중 어느 것이 독립변수이고 어느 것이 종속변수인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대학이 사회에서 누리는 특권이 대학의 서열을 공고히 하고 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입시경쟁과 비용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특정 서열의 특정 대학교 졸업자들이 자신들이 지출된 교육비와 자신들의 서열을 받기 위해 동창회 등을 통해 자신들의 특권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역사적으로 해방 직후에는 대학 전체의 정원도 많지 않았고 각 대학의 서열도 확고하지 않았으며 동창회도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학벌·학력의 가치가 확고해지면서 이것이 입시경쟁과 비용을 끌어올리고 대학의 서열과 수능점수의 중요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학벌의 가치가 교육비용을 끌어올리는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학벌이 일반 상품이나 상표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우선 학벌이나 학력의 가치를 표현하는 졸업장의 매매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졸업장의 매매는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입시전쟁과 사교육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허가 및 졸업장이 학생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얻어진 값진 열매이며 매매의 대상이 아니어서 신성하다는 강력한 허위의식으로 뒷받침된다.

둘째, 대학교 입학허가 및 졸업장에 대한 수요·공급은 가격에 대해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대학교육에 대한 대체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 상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한국에서 대학교육의 수요와 공급이 등록금 등 가격에 의해 별로 조절되지 않는다. 더구나 대학의 서열로 인해 졸업장들이 질적으로 구분되어 시장이 '분단'되어 있다. 이것은 대학교육 자체에 대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명 대학의 입학허가나 졸업장을 대신할 재화나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유명 대학의 교육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등록금 등에 거의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뒤집어 본다면,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등록금 등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수요량의 변동이라는 경제적 행위가 아니라 등록금 투쟁이라는 정치적 행위로

이어진다.

셋째, 학벌 및 학연에는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이 결부되어 있는데 양자의 수급 조절에 있어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조정기간은 물론 고전학파에서 상정한 것과 같은 출산 및 인구 조절에 의한 임금변동보다는 짧을 것이다. 그러나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는 일반 상품의 가격과 요소시장의 가격의 관계에서보다 길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추정의 근거는 학벌집단과 대학이 개입되어 있어 서양의 선진 경제에서처럼 노동시장의 반응이 즉각 교육시장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과 교육시장 사이에 학벌집단과 대학이 끼어 들어 노동시장의 변화를 나름대로 왜곡하고 변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교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려는가가 동창회를 통해 과장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되어 생기는 오차나 교란이 적지 않다. 또한 특정 학과에서 육성하는 능력이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 요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이런 사실은 은폐되어 이 분야에 학생들이 변함 없이 모여들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특정 학과로의 폭주나 그로부터의 대거이탈이라는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대학에서의 전공별 학생 배분은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는 미세한 조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점에서 비록 학벌과 대학의 기득권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의 상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학에 대한 기업의 불만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졸업장의 공급 혹은 졸업생의 증가가 상품의 경우와 달리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치나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 한편으로 상품과 같이 특정 대학 졸업생의 증가가 이 대학 졸업생의 희소성을 감소시켜 이 대학에 부여되는 학벌의 가치와 가격을 하락하게 만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개인은 보다 높은 서열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해당 대학이 정원을 늘리기를 원하지만, 이 대학의 동창회에서는 학벌의 가치를 낮춘다고 보아 이에 반대할 수 있다. 여기서 변호사나 회계사 시험에서 드러나는 개인과 집단 전체 혹은 내부자와 외부자의 길항(拮抗)이 존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졸업생의 증가가 동창회의 규모를 늘려 특정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를 낳을 수 있다. 학벌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집단의

형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므로 그 집단의 규모 증가가 집단의 이익을 규모 증가비율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특히, 이 규모가 특정 분야에서 일정한 비율을 넘어서는 경우 대학의 서열에 따른 가치 자체에 변동을 낳을 수도 있다. 앞서 회소성의 감소로 인한 가치와 가격의 하락이 학벌이나 학연에 고유한 것이라면, 규모의 경제는 학벌이나 학연이 지연이나 혈연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부모와 학생은 높은 서열의 대학이 정원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동창회에서는 양면적이며, 각 대학 당국은 재정 문제로 인해 정원증가에 전반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교육부가 대학, 특히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원은 각 대학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IV. 학벌·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의 정당성

경제학자들은 가치의 결정 요인에 대해 객관적 이론과 주관적 이론으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¹⁵⁾ 전자는 상품에 투입된 노동 혹은 생산비가 그것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는데 비해, 후자는 사회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한 것이 모여 특정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예로서, 객관적 가치이론에 의하면 사과가 비싼 것은 그것을 생산하는데 많은 노동이나 생산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이며, 주관적 가치이론에 의하면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그것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다.

객관적 가치이론에 따르면 교육과 입시경쟁에 많은 노동과 비용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학력·학벌이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임금이나 직위의 차이가 이런 노동이나 비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투입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사교육비가 유명 대학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데 점점 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노동과 비용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할 정당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15) 이에 대한 논의로는 홍 훈(2000b)이나 Hong(2000)을 참조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건전한 선택일 수 없다. 더구나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며 유용한 노력이거나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¹⁶⁾ 입시경쟁을 위한 과외공부는 이런 관점에서 건전한 선택이라고 보기 힘들며,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입시 경쟁을 통해 얻은 학력·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도 상당 부분 부당하다. 나아가서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사회계층간의 이동을 도와주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장치가 아니라 반대로 계층을 공고히 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장치로 변했다고 말할 수 있다.

주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주관적 가치이론은 학력·학벌의 가치가 높은 이유를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에서 찾는 논리와 합치된다. 모든 사람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원하고 학교 졸업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학력·학벌의 가치도 높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한국인이 타고났거나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지만 현재는 주어진 기호나 선호(preference)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학력·학벌이 갖는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논리와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것이 한국인의 기호나 선호가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이라 규정하고 이것을 의식개혁이라는 막연한 방법을 통해 개선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교육열을 단순히 선호로 간주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한국인 누구에게나 교육은 여러 가지 선택 대상 중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모든 대안을 압도하는 절대적 재화이다. 그래서 조기취직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이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우월한 선택이 된다.¹⁷⁾ 다른 재화로 대체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교육에 대한 수요는 등록금 등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나 서비스이다. 더구나 교육열을 강조하는 논리는 기호나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묻지 않고 있다. 유교문화로 인해 교

16) 물론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기준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주류 경제학이나 보수적 사회과학에서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에 불과하며, 이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에 따라 사회적 유용성은 개인들의 기호나 선호의 단순한 합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교육열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글은 한국의 현실로 볼 때 적어도 교육에 관해 이와 같은 개인주의가 허용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17)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인의 선호를 상당히 다양하고 '수평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홍 훈, 1992, 55쪽). 이에 비하면 대학서열 등 교육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기호나 선호는 순서나 우열이 중요한 '수직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육에 대한 열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는 식의 논리가 과거 한국사회에서 타당한 것일 수 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열은 자식이 향후에 누리게 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목표로 하는 계산적인 투자이다. 다시 말해, 대학서열에 의존해 거의 불확실성 없이 예측되는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겨냥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수행되고 여기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다. 한국경제에서 그것은 주식 등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보다 훨씬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투자이다.¹⁸⁾

이런 문맥에서 보면 한국의 교육열을 비정상적인 기호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그 근원을 한국인의 한 맺힌 의식에서 찾기보다 비정상적인 한국의 사회 구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사회를 주어진 것으로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 교육열은 아주 자연스러운 '기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열에 의존하는 주관적 가치이론은 학력·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설명하는 궁극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

주류 경제학과 이에 근거한 신자유주의는 주관적 가치이론보다 느슨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 원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학력, 그리고 심지어 학벌의 가치는 현실의 근거를 가진 존재가 된다.¹⁹⁾ 모든 가치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설명하고 정당화하므로, 학력·학벌의 가치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²⁰⁾ 특정 학력·학벌이 높은 가치를 가지며, 그것의 가치로 인해 특정 대학의 졸업장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

18) 최강식 등 (2003)에 의하면 임금과 교육기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한국의 교육투자 수익률은 선진국에서와 같은 속도로 하락하지 않고 있으며 동일소득 수준의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 학력에 대한 주류경제학이나 신자유주의의 입장은 분명하지만 재벌뿐만 아니라 학벌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이중적이다. 한편으로 주류경제학은 카르텔이나 봉건적 독점을 거부하고 세계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학벌에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주류경제학은 어떤 사회에서는 현존하는 존재나 가치에 대해 옹호하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시장을 옹호하면서 학벌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자에 속하고, 시장과 학벌 모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후자를 따르는 것이다. 물론 시장주의자들의 학벌 비판은 효율성과 경쟁이라는 이념에 함몰되어 있어 여러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20)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기심이라는 '인간의 본성'(human nature)에 따라 벌이는 개인들의 행위가 모여 시장에서 자연상태(the state of nature)를 이룬다고 주장한다(홍훈, 2000a). 이 논리에 의하면 학벌의 높은 가치와 엄청난 사교육비는 모두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문제는 주류 경제학이 특정 사회구조의 가변성이나 역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은 바로 학벌로 규정되는 한국사회의 역사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고,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 입시경쟁이 발생한다고 보게 된다. 또한 입시 경쟁을 위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이로 인해 사교육비의 지출도 정당한 것이 된다. 더구나 입시 경쟁은 철저한 절차적 합리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합당한 것이 된다.

이 논리에 의하면 고용주는 특정 학교의 졸업장이 그 소유자의 과거 노력이나 능력을 압축해 나타내 주는 신호(signal)라고 생각한다(Spence, 1973). 다시 말해, 특정인에 대해 그의 여러 가지 측면을 복잡하게 고려할 필요 없이 졸업장 하나로 간단히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 대해 여러 가지로 따져볼 필요 없이 유명 상표(brand)를 택하는 것과 같다. 여러 소비자가 사용해 본 제품의 상표나 여러 기업주가 고용해 본 특정 대학 졸업생의 졸업장이나 모두 평판(reputation)에 근거하고 있다. 졸업장의 가치가 해당 학교 졸업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임금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절되면서 학력·학벌의 가치도 사회적으로 적정한 균형을 유지한다고 본다. 이같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존하면 학벌이 엄청난 가치를 갖는 한국의 현실 역시 효율적이며 정당한 것이 된다.

더불어 IMF 위기 이후 우리 사회와 교육계를 지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이 사회구성원들을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적자본(human capital)으로 변화시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근거에서 학력과 입시경쟁을 정당화한다(Rosen, 1987 참조). 더구나 우수한 학생들을 모아 놓아야 훌륭한 인재가 발굴된다는 논리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학벌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간주하지 않으며 기껏해야 피할 수 없는 부산물 정도로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고 평준화나 대학 평준화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 파생된다. 또한 이런 관점의 주창자들은 학력·학벌이 근대화 이후 서양역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했고, 마치 도심의 교통체증과 같이 어디서나 발생한다는 보편주의에 기대어 이것이 사회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손쉬운 대책도 없다고 주장한다.²¹⁾ 최대한 양보해 학벌의 폐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들은 의식 개혁이나 세계화의 추세로 인한 자동적인 학벌 해체라는 안일한 대책들에 만족하게 된다.

신고전학파에서는 입시비용, 대학서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권력의 크

21) 온갖 종류의 보수주의는 시간이나 공간상의 보편성, 즉 보편주의를 내세워 사회문제를 없애고 현상(status quo)을 정당화한다. 이것은 주류 경제학이 시장이 역사상 언제나 존재했고, 잠재적으로나마 어디든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된다.

기와 돈의 액수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며, 그 균형가격이 계속 증가해 온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그런데 신고전학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입시비용, 대학서열, 그리고 권력과 임금 사이에 상호의존성을 제시할 뿐이다. 흔히 알려진 일반균형이 동시결정(simultaneous determination)의 체계라는 해석에서 확인되듯이, 신고전학파는 사교육비나 입시비용이 높은 이유를 대학에 서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대학의 서열로 권력차등이나 임금격차를 설명하며, 거꾸로 뒤집어 권력차등이나 임금격차로 대학서열을 혹은 입시비용을 설명한다.

그러나 신고전학파의 가격이론은 입시비용이 왜 높고 상승했는지, 대학의 서열이 왜 더욱 강화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근거한 권력의 차등이나 임금 차등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 더구나 이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가치나 가격에 대해 무조건 정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다.

전반적으로 학력·학벌로 규정되는 한국사회와 교육 현실이 효율적이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많지 않을 것이다. 사회문제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일차적인 기준이 사회 구성원들의 감정이나 태도라고 본다면 학력·학벌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객관적으로 한국 대학의 졸업장이 선진국의 유명 대학 졸업장 앞에서 그 가치를 상실한다는 사실에서도 우리가 학력·학벌에 부여하는 가치가 보편성을 가지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달러화와 영어 앞에서 원화나 우리말이 무력해지는 것과 유사할 것이다.²²⁾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학력이나 학벌의 가치는 단순히 주관적 가치이론이나 객관적 가치이론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이들 가치이론들은 모두 경쟁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우리의 입시경쟁은 이런 경쟁과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학벌과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가지는지 논의할 수 있다.

우선 학력·학벌을 쟁취하려는 한국의 입시경쟁은 일생을 통해 거치는

22) 수요·공급 이론은 스키너(B. F. Skinner)의 행동 심리학에 의존해 한편으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결과와 행동의 변화 사이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이론적 공백을 남기고 있다(Pribram, 1996, p. 42). 이런 이유로 이 이론은 한국의 학력·학벌 문제에 대해 궁극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 이런 논리보다 의식이나 기호와 제도나 사회구조 양자 사이의 공진화(coevolution)를 설정하는 논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 차례의 경쟁들 중 하나가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입시경쟁은 일생에 있어서 거의 단 한 번 있는 '필사적 도약'이다. 이것은 입시를 통해 대학 진학 여부와 특정 대학의 진학이 결정되어 권력, 돈, 명예 상의 몫이 정해지면 이후에 이것을 반복하기 힘들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사회의 입시 경쟁은 사회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각종의 경쟁들을 모두 흡수하여 대신하고 있다. 수능점수를 놓고 벌이는 학생들의 경쟁이 대학 진학 후의 학업경쟁과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을 대체 하며, 전공 내에서 벌어져야 할 교수들의 경쟁을 대신한다. 대학의 서열이 고착되어 있어 미국에서처럼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교의 노력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없으며, 우수교수를 유치하는 등 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노력도 고착된 대학의 서열 앞에서 무력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시는 경쟁의 끝이자 독점의 시작을 의미한다(흥 훈, 2002b, 35~36쪽).

이것은 여러 차례의 경쟁을 통해 누적된 결과로 인생의 후반에 나타나야 할 사회구성원의 '성적'이 20대 이전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경쟁의 결과인 학력·학벌의 사회적 가치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으며, 철용성의 진입 장벽으로 보호되는 지대(rent)의 성격을 갖게 된다.²³⁾ 사회경제적 가치가 지대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한편으로 입시에서 성공한 사회구성원들은 이름뿐인 엘리트로 변신해 자기 희생이나 의무가 수반되지 않은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권력형 부패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입시에서 좋은 학력이나 학벌을 쟁취하지 못한 사회구성원들은 사회경제적 유인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키우거나 노력을 경주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서 수능점수의 차이가 사회현장에서 실적의 차이로 나타나고 수능점수의 차이가 권력이나 부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가 스스로를 실현하게 된다. 따라서 입시는 단순히 주어진 능력을 확인하는 정태적인 과정이 아니라 능력의 차이를 특정 방향으로 빚어내는 동태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벌이 없는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 사회에서 진정으로 자신이 능력 있음을 보여주는 것만이 학벌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경쟁이나 능력의 동태적

23) 이런 관점에서 경제학의 지대추구이론(DUP)을 우리사회의 학력·학벌 문제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 성격이나 사회구조의 자기실현(self-fulfillment)을 간과한 것이다.²⁴⁾

같은 문맥에서 단순히 변별력이라는 관점에서 입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리사회에서 입시가 발휘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변별력 운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능력이 주어져 있으며, 수능시험의 목적이 이런 능력의 차이를 단순히 밝혀내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입시제도가 학생들의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육성하는 동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이 생각은 대체로 인간의 본성이나 물체의 자연적 속성에 의존해 사회를 설명하는 사고 방식, 즉 조악한 자연주의(crude naturalism)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앞서 언급된 보수주의나 보편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런 자연주의의 성향은 우리의 교육문제를 교육열에 의존해 설명하고, 수능점수의 차이를 타고난 능력의 차이로 간주하며, IQ 등의 지수나 수능점수 등에 매료되는 것, 교수의 능력을 SSCI나 SCI 게재 논문 수와 동일시하는 것 등에서 발견된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입시 경쟁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인생의 관문이 된다.

또한 기존 경제학에서 상정하는 경쟁은 기술혁신 등을 통해 사회 전체의 파이가 증가한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교육과 연관짓는다면 경쟁이 인격의 도야, 공동체 의식이나 시민 의식의 함양, 학문적 소양의 연마 혹은 기능적 지식의 획득 등 여러 목표들을 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시 교육은 이런 결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입시 경쟁이 요구하는 주입식 교육은 전통적인 교육의 숭고한 가치를 도외시할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에서 요구되는 실용적인 지식을 제공하지도 못한다. 쉽게 말해,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달리기인데, 우리의 입시 교육은 학생들에게 턱걸이를 잘 하라고 강요하는 것일 수 있다.

한국의 각 사회구성원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여하는 가치 이외에 학력이 부여하는 가치, 그리고 소속 학벌에 부여되는 가치를 누리게 된다. 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문기술 획득이라는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학력의 획득과 재생산은 완전히 비생산적이라

24) 과거 양반사회에서 태어날 때 아무런 차이가 없는 양반의 자식과 평민의 자식이 결국 사회구조가 바라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나 한 가족 내에서 마찬가지로 상황에 있는 장남과 차남, 남아와 여아가 결국 가부장적 질서에 합당한 '형질'을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대해서는 신고전학파에서도 이미 인정하고 있다(Becker, 1993, p. 388).

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학벌 획득이나 재생산에 수반된 행위는 이런 소양이나 기술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때 완전히 비생산적이다. 달리 본다면 학력은 그 형성 과정에서 무언가 증가시키는 것이 있다면, 학벌형성은 무언가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오로지 주어진 것을 나누는데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졸업장을 단순히 해당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신호로 간주하는 논리도 성립하기 힘들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도 졸업장이 고용주에게 일종의 신호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사회에서 졸업장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특정인의 과거 노력이나 이에 의해 축적된 능력뿐만 아니라 학벌이 내포하고 있는 힘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언론사에서 유명대학 출신자를 기자로 채용할 때 그 언론사는 이 기자가 동창회의 인맥을 통해 다른 대학 출신보다 공무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한국의 졸업장은 이런 측면을 신호해 주는 것이다. 이런 기능에 근거해 형성되는 졸업장과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부당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 입시경쟁이 근대성의 확보라는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면서 학력·학벌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학력·학벌의 가치는 진정한 의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자율성과 형평성을 희생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학력, 그리고 더욱 심각하게 학벌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엄연한 현실로 존재하지만 정당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학력의 가치가 대폭적으로 축소되고, 학벌의 가치가 영(零)이 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김천기 (2001),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학지사.
 최강식 등 (2003),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國際經濟研究』, 9권 3호.
 홍 훈 (1992), "근대경제학내의 자유주의", 『사회비평』, 8호.
 _____ (1994), "경제민주화의 사상적 배경", 『연세경영연구』, 31권, 2호.
 _____ (1999), 『한국 자본주의의 실체』, 대한상공회의소.
 _____ (2000a), "경제, 자연, 그리고 문화와 제도", 『제도연구』, 4, 103~

- 140쪽.
- _____ (2000b), 『마르크스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사상』, 대우학술총서, 아카넷.
- _____ (2002a), “외국의 학벌문화: 名門은 있으되 패거리는 없다”, 『新東亞』, 3월.
- _____ (2002b), 학벌, 과연 새로운 신분인가?, 학력·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협의회 발표문, 한국교육개발원.
- Becker, G. S. (1993), “Nobel Lecture: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pp. 385~409.
- Collins, R. (1979), *The Credential Society*, New York: Academic Press.
- Dumont, L. (1977), *From Mandeville to Marx*,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_____. (1980), *On Value, Radcliffe-Brown Lecture*, London: The British Academy, Oxford University Press.
- Hong, H. (2000), “Marx and Menger on Value: As Many Similarities as Differenc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4, pp. 87~105.
- _____ (2002), “Marx’s Value Forms and Hayek’s Rules: A Reinterpretation in the Light of the Dichotomy between Pheis and Nomo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6, pp. 613~635.
- Marx, K. (1963a), “On the Jewish Question,” *Karl Marx: Early Writings*, ed. T. Bottomore, New York: McGraw-Hill.
- _____ (1963b)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Hegel’s Philosophy of Right,” *Karl Marx: Early Writings*.
- _____ (1963c), “Economic and Philosophical Manuscripts,” *Karl Marx: Early Writings*.
- _____ (1967), *Capital*, Vol. 1,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 Pribram, K. H. (1996), “Interfacing Complexity at a Boundary between the Natural and Social Sciences,” *Evolution, Order and Complexity*, London: Routledge.
- Rosen, S. (1987), “Human Capital,”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Vol. 2, London: Macmillan, pp. 681~690.
- Spence, A. M. (1973), *Market Signalling*,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